

##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계속해서 브엘세바에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이삭은 그 땅을 물려 받은 유일한 약속의 자손이었다. 이스마엘도 가나안을 떠났고 아브라함이 후처에게 낳은 자식들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재산을 떼어주고 저 멀리 동방으로 떠나게 했다. 가나안은 오롯이 이삭의 몫이었다.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찾아주셨다.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 것을 명령하셨고 자손대대로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곧 이삭의 언약이 되어 있었다. 이제 이삭도 자신의 아들에게 이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했다.

## 아버지의 마음

장자 에서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가나안 지역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다. 그것도 두 명이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에서는 헷 여인과 결혼을 해버렸다. 이미 에서는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 대단하냐며 죽 한그릇에 팔아버린지 오래다.

**에서가 사십 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 창세기 26:34-35**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어 받을 장자 에서였다. 그런 에서가 이방여인을 둘 이나 거느리고 장자의 명분을 건어차버렸으니 이삭의 마음이 편할리가 없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력이 나빠진 이삭이 에서에게 죽는 소리를 한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 창세기 27:2-4**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유언과 예언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적인 재산의 분배이고 믿음 안에서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또한 예언이기도 했다. 이런 축복은 주로 죽기 직전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삭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며 만아들 에서를 불렀다. 아직은 때가 일렀지만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고 싶었다. 에서의 사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의 일이 염려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리브가의 마음은 달랐다.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가 일을 꾸며 남편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한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 창세기 25:28**

이삭은 백팔십 세에 죽었다.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던 이삭이 그 후로도 오십년 가까이 더 살았다. 에서가 무서워 도망쳤던 야곱이 돌아왔을 때도, 손자 요셉이 태어났을 때도 이삭은 아직 살아 있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더니….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 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 창세기 35:28-29**

이삭은 에서를 위해 일찍 재산을 정리하고자 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가 정말로 작은 자를 섬기게 될까 염려했을까?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을까?

아비 마음을 모르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이방 여인을 여럿 거느려 부모의 근심이 되더니 결국 리브가의 모략으로 장자의 축복을 공식적으로 빼앗긴다. 훗날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포함된 가장 큰 유산인 - 하나님의 언약 - 가나안을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창세기 25:23)이 이루어졌다.